

# 《清華大學藏戰國竹簡》의 《尹誥》와 문자 연구\*

崔 南 圭\*\*

<目次>

I. 《清華大學藏戰國竹簡》과 《尹誥》	2. ‘顛自憇亓又民’ 중 「顛」와 「憇」자
1. 《清華大學藏戰國竹簡》	3. ‘隹昏眾非民亡與獸邑’ 중 「眾非民」에 대한 이해
2. 《尹誥》와 《古文尙書》	4. ‘我克 <sub>𠄎</sub> 我沓’ 중 「 <sub>𠄎</sub> 」자
II. 《尹誥》의 문자 연구	5. ‘眾于白 <sub>𠄎</sub> 邑’ 중 「 <sub>𠄎</sub> 」자
1. ‘隹尹既 <sub>𠄎</sub> 湯咸又一憇’ 중 「 <sub>𠄎</sub> 」자	III. 결 론

## I. 《清華大學藏戰國竹簡》과 《尹誥》

### 1. 《清華大學藏戰國竹簡》

《清華大學藏戰國竹簡》은 중국 清華大學이 2008년에 홍콩에서 매입한 약 2,388枚(殘簡 포함)의 楚簡을 말한다. 그 후 李學勤이 主編하여 2010년에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尹至》·《尹誥》·《程寤》·《保訓》·《耆夜》·《金縢(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2.

\*\* 全北大 中語中文學科 教授,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皇門》·《祭公》·《楚居》 등 9편이 실려 있다.<sup>1)</sup> 2011年 12月에는 《清華大學藏戰國竹簡(貳)》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周初에서 戰國初期 楚悼王까지의 역사를 編年體로 기록한 것으로, 문장 체제와 내용이 西晉 때 汲冢에서 출토된 《竹書紀年》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편명을 《繫年》이라고 하였다. 竹簡은 138매이며, 문자는 약 4000字이다.<sup>2)</sup> 《清華簡》은 모두 약 64편이 된다고 하는데, 문자의 형태·죽간의 형식과 내용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나 《郭店楚墓竹簡》과 비슷하며, 특히 《尚書》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계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sup>3)</sup>

《清華簡(壹)》 중 《尹至》와 《尹誥》는 伊尹과 商湯이 夏桀을 정복한 내용이다. 《尹至》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지 않은 유실된 《尚書》 중 한 편이다. 《尹誥》는 《咸有一德》이라고도 하며, 《上博楚簡·紂衣》·《郭店楚簡·緇衣》와 《禮記·緇衣》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尹誥》는 僞古文 중의 《咸有一德》의 眞僞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程寤》와 《保訓》은 周 文王에 관한 내용이다. 《程寤》는 《逸周書》의 한 편 즉 《漢書藝文志》의 《周書》 71편 중의 한 편으로, 文王이 天命을 받은 내용이다. 《保訓》은 周 文王 임종 전에 武王에게 하는 遺言이다. 그 중 商朝의 祖先 上甲微와 ‘中道’에 관한 내용은 오래 전에 유실되어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 《耆夜》는 周 武王 8년에 耆國을 정복한 후, 周나라 文王 宗廟에서 武王·周公·畢公·召公·辛甲·作冊逸·師尚父 등이 모여 祭禮 「飲至」를 거행하는 내용이다.<sup>4)</sup> 《耆夜》의 내용을 통하여 周가 黎國을 정복한 해는 周 武王 8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1)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上海中西書局, 2010.

2)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貳)》, 上海中西書局, 2011, 135쪽 참고.

3) 《郭店楚墓竹簡》은 《郭店楚簡》으로,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은 《上博楚簡》으로,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은 《清華簡(壹)》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이하 같음.

4) 劉國忠, 《走進清華簡》, 北京高等教育出版社, 2011, 132쪽 참고. 「耆國」은 「黎國」이며, 「黎」·「豎」·「饑」·「阨」으로 쓰기도 한다.

《金縢(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는 《尚書》의 한 편이다. 武王이 商을 멸망시킨 후 병이 나자 武王의 동생 周公이 武王을 대신해서 병 들고 싶다는 기도문을 「金縢之匱」에 보관한 내용이다. 《金縢(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는 현행본 《金縢》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尚書》의 원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皇門》은 《逸周書》의 한 편이다. 周公은 신하들은 마땅히 獻言하여야 하고 현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周公의 훈계내용이다. 현행본 《皇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祭公(祭公之顧命)》 역시 《逸周書》의 한 편이다. 《禮記·緇衣》에서 인용하고 있는 《喋公之顧命》과 같다. 《上博楚簡·紂衣》는 “**聃**公之《寡(寡)命》員(云): 毋曰(以)少(小)惝(謀)敗大煮, 毋曰(以)辟(嬖)御書妝后, 毋曰(以)辟(嬖)土書夫=向(卿)使(土)”로 쓰고, 《郭店楚簡·緇衣》는 “**葉**公之寡(顧)命員(云): 毋以少(小)惝(謀)敗大攄(作), 毋以卑(嬖)御息(塞)妝(莊)句(后), 毋以卑(嬖)土息(塞)大夫·卿事(土)”로 쓰며,<sup>6)</sup> 《禮記·緇衣》는 “葉公之顧命曰: 毋以小謀敗大作, 毋以嬖御人疾莊后, 毋以嬖御士疾莊士大夫·卿士”로 쓴다.<sup>7)</sup> 《楚居》는 歷代 초나라의 國君의 世系와 定都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清華簡》에는 《古文尚書》·《今文尚書》나 《逸周書》에 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적의 실체와 초

5) 李學勤 主編(2011), 앞의 책, 151쪽 참고.

6) 簡文의 내용으로 보아 聃公이 《寡命》을 지은 것으로, 《禮記·緇衣》에서 鄭玄은 “葉公, 楚縣公葉公子高也, 臨死遺書曰顧命(葉公은 楚縣公 葉公으로써 이름이 子高이다. 죽음을 앞두고 유서로 남긴 내용이 顧命이다)”라고 설명하였다. 簡文에서의 ‘聃公’은 즉 ‘葉公’을 가리킨다. 《禮記本》의 ‘葉公’을 鄭玄은 《禮記注》에서 초나라 葉公子 高라 하였으나, 孫希旦(《禮記集解》)은 ‘葉’은 ‘祭’의 오자라고 주장하였다. 이 내용은 《逸周書》의 《祭公》 중에 보이며, ‘祭’와 ‘蔡’는 고문에서 종종 호환되어 사용된다. ‘蔡’와 ‘葉’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葉公’이 아니라 ‘祭公’이다. ‘顧命’이란 죽을 때 회고(回顧)하면서 남기는 유언을 말한다. 최남규 譯註,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紂衣》, 소명출판사, 2012, 161-164쪽 참고.

7) “小臣의 계략을 가지고 대신의 계획을 망치지 말며, 嬖御(폐어, 비천한 출신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의 사람으로써 莊后(장후)를 버리지 말고, 폐사로써 장사·대부·경사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자료이다.

## 2. 《尹誥》와 《古文尙書》

《尙書》는 孔子가 고대의 문헌을 100편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sup>8)</sup> 《堯典》·《皋陶謨》·《禹貢》이나 《洪範》 등은 후에 추가된 내용이다.<sup>9)</sup> 《尙書》 이전에 이와 유사한 경전으로 《三墳》·《五典》·《八素》나 《九丘》 등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이미 유실되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sup>10)</sup> 秦始皇이 《挾書律》을 발표한 후 《尙書》 역시 수난을 당하였다.<sup>11)</sup> 《今文尙書》는 西漢 초기에 秦나라 博士였던 伏生(伏勝)이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漢 文帝 때 隸書로 옮겨 쓴 28篇을 말한다. 漢나라 景帝의 아들 魯共王 劉餘가 孔子의 故宅 벽에서 발견한 《尙書》는 古文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古文尙書》라 한다. 漢 武帝 말기 때 孔子의 제 23대 후손인 博士 孔安國이 《古文尙書》를 정리하였

8) 屈萬里 註譯, 《尙書今註今譯》,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69, 1쪽 참고.

9) 屈萬里, 같은 책, 참고. 屈萬里는 《尙書今註今譯》에서 《堯典》에 대하여 “可知本篇之著成, 最早亦不能前於戰國之世.(본 편이 출현은 빨라도 전국시기 이전이라고 할 수 없다)”(3쪽)라고, 《皋陶謨》에 대해서는 “疑與堯典同時(或稍後)著成.(《堯典》과 같은 시기이거나 혹은 그보다 약간 뒤에 쓰여졌다)”(20쪽)라고, 《禹貢》에 대해서는 “本篇蓋成於春秋時也.(본 편은 대략 춘추시기에 쓰여진 것이다)”라고(32쪽), 《洪範》에 대해서는 “蓋約當戰國初年也.(본 편은 대략 전국시기 초기에 쓰여진 것이다)”(74쪽)라 하였다.

10) 《左傳·昭公十二年》은 “楚左史倚相趨過, 王曰: ‘是良史也, 子善視之, 是能讀《三墳》·《五典》·《八索》·《九丘》.’”(초나라 左史인 倚相이 그들의 앞을 달려 지나갔다. 王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좋은 사관이오. 그러니 당신은 잘 보아두시오. 그는 《三墳》·《五典》·《八索》과 《九丘》 등 옛 책을 잘 읽을 수 있소’)”라 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經典이나 《說文解字》·《說文通訓定聲》 등은 사고전서 혹은 일반 字典 등에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나 쪽수를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11) 「挾書律」이란 秦始皇이 焚書를 할 때 실행한 法令 중의 하나이다. 官府는 藏書를 허락하고 民間이나 個人은 藏書를 금지한 법령이다.

고, 이 《고문상서》는 伏生の 《古文尙書》에 비하여 16篇이 더 많다. 그러나 魏晉 永嘉 때 전란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sup>12)</sup>

晉 元帝 때 豫章內史 梅賾(혹은 枚頤라고도 한다)이 孔安國이 쓴 《古文尙書》 58篇을 헌납하였는데, 이 책은 經文 아래 ‘傳(註解)’가 있고 앞 부분에는 孔安國의 <序>가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각 편마다 있는 <小序>와 구별하여 <大序>라 한다. 이 58편 중에는 《古文尙書》 33편, 《古文尙書》 25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古文尙書》는 伏生이 《古文尙書》를 재편집한 것이고, 《古文尙書》는 공자 고택에서 발견한 壁中書다. 孔穎達의 《尙書正義》와 陸德明의 《經典釋文》, 宋代의 《十三經注疏》는 모두 이 梅賾의 판본을 사용하였고, 지금 우리가 보는 《書經》은 일반적으로 이 판본을 가리킨다.

그러나 梅賾의 헌납본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의심을 하여 왔다. 宋代 吳域의 《書稗傳》과 朱熹의 《書集傳》에서는 《古文尙書》가 《今文尙書》보다 쉬운 문체로 쓰여진 것은 일반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今文尙書》는 기본적으로 伏生이 외우고 있던 내용을 朝錯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난해한 내용만을 암기하고는 있지 않았을 것이고, 《古文尙書》는 秦 이전 문자로 기록된 것이며 발견당시 흩어져 있던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朱熹는 또한 孔安國의 <序>와 <傳>도 漢代의 문장 풍격과 다르기 때문에 魏晉 때 공안국을 위탁하여 쓴 것일 것이고, 孔子가 썼다는 <小序>도 각 편의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이후 吳棫·蔡沈·吳澄·梅賾·王鳴盛 등도 《古文尙書》와 孔安國의 <傳>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고, 특히 淸 閻若璩의 《尙書古文疏證》은 각종 문헌 자료와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여 《古文尙書》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고증하였고, 惠棟 《古文尙書考》는 이를 더 보충 설명하였다.<sup>13)</sup> 그래

12) 金學主 譯著, 《書經》, 明文堂, 2002, 26-30쪽 참고.

13) 같은 책, 31-33쪽 참고.

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僞古文尚書》, 《僞孔傳》 혹은 《僞孔》·《僞傳》·《梅氏僞古文尚書》라고도 한다.

《尹誥》는 《古文尚書》의 한 편으로 《咸有一德》이라고 한다. 《禮記·緇衣》에 “尹吉曰: 惟尹躬及湯咸有一德.(이윤과 탕 임금은 모두 큰 덕을 지니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上博楚簡·紂衣》는 “尹彛(誥)員(云): ‘佳(惟)尹爰及康(湯), 咸(咸)又(有)一惠(德).’”으로, 《郭店楚簡·緇衣》는 “《尹彛(誥)》員(云): ‘佳(惟)尹(伊)躬(尹)及湯, 咸又(有)一惠(德).’”으로 쓴다. 「尹彛」는 즉 「尹誥」로 「伊尹의 誥誠(훈계)」라는 뜻이다.<sup>14)</sup> 「康」자와 「湯」자는 고문에서 서로 통용되며, 《郭店楚簡》과 《禮記》는 「湯」으로 쓴다. 《上博楚簡》과 《郭店楚簡》은 먼저 《詩經》을 인용하고, 다음에 《尹誥》를 인용하고 있지만, 《禮記》는 이와 반대로 《尹誥》를 먼저 인용하고 《詩經》을 후에 인용하고 있다. 楚竹簡은 ‘彛’자를 偏旁 「言」과 「収(共)」聲인 「誥」·「誥」로 쓰는데, 《史記》「王彛畢公」중 「彛(彛)」자와 형태가 같다. 唐蘭은 《何尊》의 「誥」자를 「誥」자로 해석하였다.<sup>15)</sup> 《經典釋文》은 “誥本亦作彛.(「誥」자를 「彛」자로 쓰기도 한다)”라 하였고, 《玉篇》에도 “彛古文告.(「彛」는 「告」의 古字)”라고 설명하였다.<sup>16)</sup> 「彛」자는 「誥」자의 이체자이다. 《汗簡》이 《王子庶碑》을 인용한 「誥」자는 《楚簡本》의 형태와 같다.<sup>17)</sup> 「尹爰」는 즉 「伊尹」이다. 《郭店楚簡》에서는 「尹躬」로 쓴다. 《禮記》의 《緇衣》는 「尹告」를 「尹吉」로 잘못 쓴 것이다. 鄭玄은 “吉當爲告. 告古文誥字之誤字也. 尹告, 伊尹之誥也. 《書序》以爲 《含有壹德》今亡.(「吉」은 「告」자여야 한다. 「告」의 고문인 「誥」의 誤字이다. 《郭店楚簡·緇衣》의 ‘躬’는 意符가 「身」이고 聲符가 「目」로 되어 있다. 《禮記》에서는 「躬」으로 쓴다. 楚簡에는 「

14) 崔南圭 譯註, 앞의 책, 87쪽 참고.

15) 容庚, 《金文編》, 「0409 彛」, 163쪽.

16) 陳初生 編纂, 《金文常用字典》, 陝西人民出版社, 1987. 251쪽 재인용.

17) 黃錫全, 《汗簡注釋》, 臺灣古籍出版有限公司, 2005, 33-3쪽 참고.

身)자가 자주 보이는데, 이 자는 일반적으로 「躬」의 의미로 쓰이며 「躬」과는 음이 다르다. 《禮記》에서는 이 자를 「躬」으로 쓰지만, 이는 「躬」을 잘못 쓴 것이다. 「躬」은 「尹」의 의미로, 「目」은 韻部 ‘之’에 속하고, 「尹」은 ‘文’부에 속하기 때문에 음이 서로 통하며 통가자로 쓰인다. 「允」字는 聲符가 「目」로 ‘文’부에 속한다. 따라서 楚簡의 「尹躬」은 즉 「伊尹」이다.

《清華簡》의 《尹誥》의 내용과 현행본 《尚書》의 《咸有一德》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尹誥》는 《咸有一德》이 僞古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清華簡》을 통하여 閻若璩가 《尚書古文疏證》에서 고증한 僞古文이 확실히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史記·殷本紀》에서는 《尹誥》는 商湯이 夏桀을 정벌할 때의 일이고, 《僞孔傳》은 湯王이 죽은 후에 伊尹이 商湯의 아들인 太甲에게 하는 훈계라고 하였으나, 《清華簡·尹誥》에 夏桀을 정벌하고자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史記》의 내용이 옳다고 하겠다.<sup>18)</sup>

## II. 《尹誥》의 문자 연구

《清華簡》의 《尹誥》는 모두 네 매의 죽간으로 되어 있으며, 죽간의 길이는 45cm이고, 죽간을 묶은 흔적 편선(編線)이 세 곳 있다. 원래는 제목이 없었으나, 《禮記》와 《郭店楚簡·緇衣》·《上博楚簡·緇衣》에서 인용한 구절을 참고하여 《清華簡》 편집부가 《尹誥》라 하였다. 《尹誥》은 今文에는 없고 僞古文에 속하는 현행본 《咸有一德》에 해당된다.<sup>19)</sup> 《清華簡》《尹誥》의 내용은 孔安國의 《咸有一德》과 완전히 다르다.

《清華簡(壹)》은 《尹誥》를 “佳(唯)尹既及(及)湯咸又一惠(德), 尹念天之敗(敗)西邑顛(夏), 曰: ‘顛(夏)自懲(其)又(有)民, 亦佳(惟)屮(厥)眾, 非民亡與獸(守)邑. 【1】 屮(厥)辟(作)屮(怨)于民=(民, 民)屮(復)之甬

18) 李學勤 主篇(2011), 앞의 책, 132쪽 참고.

19) 金學主, 앞의 책, 194쪽.

(用)麗(離)心, 我哉(翦)滅(滅)顯(夏). 今句(后)善(曷)不藍(監)?' 執(摯)告湯曰: '我克(協)我(友). 今【2】佳(惟)民遠邦(歸)志.' 湯曰: '於(鳴)虜= (呼! 吾)可(何)复(作)于民, 卑(俾)我眾勿(違)朕言?' 執(摯)曰: '句(后)元(其)李(賚)之, 元(其)又(有)顯(夏)之【3】金玉日(物)邑, 舍之吉言.' 乃至(致)眾于白(毫)中(中)邑【4】.'<sup>20)</sup>로 釋文하였다.

아래에서는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이 편찬하고 李學勤이 주 편한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의 '釋文'과 '圖片'을 참고하여 《尹誥》중 논의할 만한 문자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다른 초죽서의 문자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 1. '佳尹既返湯咸又一惠' 중 「既」자

《清華簡》은 「既」자를 「𠄎」로 쓴다.

정리본은<sup>21)</sup> 「既」자를 「已」의 의미로 풀이하고, 《禮記·緇衣》의 “《尹吉》曰: '惟尹躬及湯, 咸有壹德.'”(《尹誥》는 '나 이윤과 탕은 모두 한결같

20) “이윤과 商湯 즉 군주와 신하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의 순수한 덕을 갖고 있었다. 이윤은 하늘은 서쪽 도읍지 하나를 이미 버렸다고 생각하며, '하나라 걸왕은 스스로 백성과 관리들을 저버리고, 군주는 백성의 보좌가 없으면 국가를 지켜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라 군주는 백성으로부터 원망을 샀고, 백성의 마음은 이미 군주에게서 멀어졌다. 따라서 저는 곧바로 하나라를 멀하고자 하는데, 그 군주는 왜 아직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가요?'라 했다. 이윤 摯는 또한 '나는 나의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은 자기 고국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 했다. 탕왕은 '아 그러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백성을 복되게 할 수 있으며, 백성들은 짐을 저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가?'라 물었다. 이윤 摯는 '군주는 그들에게 하사품을 내려 위로하고, 하나라의 금은보화로 우리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며, 그 재정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위로를 해 주십시오'라 했다. 그래서 商湯은 백성들을 도읍지 毫으로 불러 들었다.”

부호 「【】」안의 숫자는 죽간의 순서를 가리킨다.

21) 李學勤이 主編한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은 清華大學이 소장하고 있는 초죽간을 처음으로 종합정리하여 출판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본」이라 부르고 있다.

은 덕이 있다'라 했다)" 구절에 대하여 鄭玄은 "吉當爲告. 告古文誥字之誤字也. 尹告, 伊尹之誥也. 《書序》以爲 《含有壹德》今亡.(「吉」은 「告」자여야 한다. 「告」의 고문인 「誥」의 誤字이다. 「尹告」는 「伊尹의 誥誡」이다. 《書序》는 《含有壹德》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僞古文이다)"라 했다고 했다.<sup>22)</sup>

《尹誥》의 인용문을 《上博楚簡·紂衣》는 "佳(惟)尹及康(湯), 咸(咸)又(有)一惠(德)"으로, 《郭店楚簡·緇衣》는 "佳(惟)尹(伊)躬(尹)及湯, 咸又(有)一惠(德)"으로, 현행본 《禮記·緇衣》는 "惟尹躬及湯, 咸有壹德"으로 쓴다. 《清華簡》의 '既'자 부분을 인명인 '兪'·'躬'과 '允'으로 쓴다. 따라서 '既'는 부사가 아니라 인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한다.

《上博楚簡》의 「𠄎」(兪)자를 《郭店楚簡》은 「躬」(躬)자로 쓰고, 《禮記》는 「躬」자로 쓴다. 裘錫圭는 《長沙楚帛書》의 「𠄎」자를 예로 들어, 《郭店楚簡》의 「𠄎」자는 「允」자이며 「兪」자로 가차하여 썼다고 했다.<sup>23)</sup> 金文의 「允」(允)(《虢季子白盤》)자는 초간과 형태가 비슷하다.<sup>24)</sup> 「兪」은 聲符가 「允」인 형성자이다. 「躬」의 이체자로 「躬」자가 있는데, 오른쪽부분 「呂」가 「呂」와 비슷하기 때문에 《禮記》는 「躬」자를 「躬」자로 오인한 것이다. 「躬」자의 윗부분은 「呂」형이고, 아랫부분은 「身」형이다. 「身」자를 초간에서 「𠄎」으로 쓰고, 편방 「身」이 있는 「𠄎」(仁)을 「𠄎」으로 쓴다. 따라서 「𠄎」자는 「身」과 「以」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躬」이며, 음이 「允」·「兪」·「尹」과 통한다.

「既」자의 고음은 「見」母 「微」部, 「尹」은 「以」母 「眞」部, 「伊」는 「影」母 「脂」部, 「允」은 「以」母 「眞」部로 서로 통한다.<sup>25)</sup>

22) 같은 책, 133쪽 참고.

23) 荊門市博物館 編著, 《郭店楚墓竹簡》, 文物出版社, 1998. 130쪽, 注15 참고.

24) 容庚, 《金文編》, 中華書局, 1985. '1434 𠄎'(614쪽) 참고.

25) 鄭張尙芳 著,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2003. 「既」자는 363쪽, 「尹」자와 「伊」자는 530쪽, 「允」자는 550쪽 참고.

## 2. '顯自慈元又民' 중 「顯」와 「慈」

《尹誥》의 “顯自慈元又民”은 “夏自絶其有民”으로 ‘하나라 걸왕은 스스로 백성과 관리들을 저버리다’의 의미이다.<sup>26)</sup> 《清華簡》의 「𠄎(顯)」자는 「夏」의 古文이다. 《上博楚簡·孔子詩論》은 《詩經·大雅》 중의 「雅」자를 「𠄎(顯)」(《孔子詩論》第2簡)로 쓴다. 「顯」자는 이외에도 《上博楚簡》에서 「𠄎(顯)」(《容成氏》第22簡)·「𠄎(𠄎)」(《緇衣》第18簡)·「𠄎(𠄎)」(《民之父母》第1簡) 등으로 쓴다.<sup>27)</sup> 이외에도 楚竹書 중에서 편방 「日」과 「止」를 써서 「𠄎(《包山楚簡》)·「𠄎(《楚帛書》)·「𠄎(《郭店楚簡·緇衣》)·「𠄎(《上博楚簡·性自命出》)로, 편방 「日」과 「正」 써서 「𠄎(《江陵天星觀》)·「𠄎(《新蔡葛陵楚墓》)로, 편방 「日」과 「女」를 써서 「𠄎(《包山楚簡》)·「𠄎(《曾侯乙墓竹簡》)·「𠄎(《江陵秦家嘴十三號墓》)·「𠄎(《新蔡葛陵楚墓》)로, 편방 「日」과 「虫」을 써서 「𠄎(包山楚簡)로, 편방 「日」을 써서 「𠄎(包山楚簡)·「𠄎(新蔡葛陵楚墓)로 쓰기도 한다.<sup>28)</sup> 金文은 「夏」자를 초간의 「𠄎」나 「𠄎」의 형태와 비슷하게 「𠄎」·「𠄎」·「𠄎」·「𠄎」 등으로 쓴다.<sup>29)</sup> 편방 「女」는 「又」의 변형이다.

朱駿聲은 「雅」의 가차에 대하여 《說文通訓定聲》에서 ‘又爲夏. 《荀子·榮辱》 “君子安雅”, 按 《儒效》篇“居夏而夏”之夏同, 楊倞注“正而美德者謂之雅”.(또한 「夏」자와 통한다. 《荀子·榮辱》은 “君子는 바른 것에서 편안하다”라고 했는데, 《儒效》篇의 “居夏而夏(雅에 살면 雅하게 된다)”의 夏자와 같다. 楊倞은 “바른 미덕을 갖추고 있는 것을 雅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鄂君啓節》은 「夏」자를 意符가 「頁」이고 聲符가 「𠄎」인 「𠄎」로 쓴

26) 李學勤 主編(2011), 앞의 책, 133쪽.

27) 李守奎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五)文字編》, 北京作家出版社, 2007. 287-288쪽 참고.

28) 滕壬生, 《楚系簡帛文字編(增訂本)》, 湖北教育出版社, 2008. 526쪽.

29) 容庚, 앞의 책, '0898 𠄎'(384쪽) 참고.

다.<sup>30)</sup> 「𠂔」자는 윗부분에 자부 「口」에 한 획을 추가하고, 「疋」자를 복잡하게 쓴 형태이다. 《說文解字》는 「疋(疋)」자에 대하여 ‘疋, 足也. ……古文以爲詩大雅字. 亦以爲足字, 或曰胥字.(「疋」은 「足」의 의미이다. ……古文에서는 이 자를 《詩·大雅》의 「雅」자로 쓰기도 하고, 「足」자로 쓰기도 하며, 혹은 「胥」자로 쓰기도 한다)’라 했고, 朱駿聲은 ‘疋字隸體似正, 故傳會訓正, 其實古文假疋譌, 後借雅譌.(「疋」자는 예서체 「正」자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正」의 의미로 잘못 풀이하기도 하지만, 古文에서 「疋」자는 「譌」의 가차자로 쓰며, 후에는 「雅」를 「譌」의 가차자로 쓰기도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說文解字》의 고문은 초죽간의 「夏」자 보다 더욱 생략하여 「𠂔(𠂔)」로 쓰고, 《三體石經》은 「𠂔」로 쓴다. 《上博楚簡·紂衣》의 제 9간 ‘𠂔容又(有)崇(常).(용모는 한결같이야 한다)’ 중 「𠂔」자를 《郭店楚簡·緇衣》는 ‘𠂔頌(容)又(有)崇(常)’으로 쓰고, 《禮記》는 ‘從容有常’으로 쓴다. 이 중 《郭店楚簡》의 「𠂔」자는 《說文解字》의 「夏」자 古文 「𠂔」와 상당히 유사하다. 《禮記》를 참고하여 ‘從’자로 해석하거나, ‘適’과 ‘夏’로 예정(隸定)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이 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sup>31)</sup> 하지만 《紂衣》의 「𠂔」자는 그 다음 자 「頌(頌)」자의 편방이 ‘頁’인 것으로 보아, 「𠂔」에 사람을 표시하는 편방 「人」을 추가하여 쓴 「夏」의 이체자로 아닌가 한다. 「夏頌」은 「雅容」으로 「아름다운 용모」를 나타낸다. 고문자에서 편방 「頁」과 「人」은 서로 통용된다.

「𠂔」자를 《清華簡》은 ‘𠂔」로 쓴다. 정리본은 「𠂔」자로 예정하고, 중간 오른쪽 부분은 「絶」자의 생략형인 「𠂔」로 추증하고, 전체적으로 「絶」자의 이체자로 보고 있다.<sup>32)</sup>

「𠂔」자를 또한 중간 부분을 「𠂔」聲으로 보고, 「捐(버릴 연, juān)」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33)</sup> 그러나 중간 부분의 왼쪽 자건은 「弓」과 비슷하지만,

30) 《鄂君啓節》은 ‘夏」자를 「𠂔」로 쓴다. 容庚, 앞의 책, ‘0898 𠂔’(384쪽) 참고.

31) 崔南圭 譯註(2012), 앞의 책, 133-139쪽 참고.

32) 李學勤 主編(2010), 앞의 책, 133쪽 참고.

오른쪽 부분은 「隳」과 비슷한 형태이다.

《郭店楚簡·老子甲》 “隳(絕)智(知)弃卞(辯), 民利百倍(倍). 隳(絕)攷(巧)弃利, 覘(盜)惻(賊)亡又(有). 隳(絕)慳(僞)弃慮, 民復(復)季<孝>子(慈).(지모를 단절하고 교묘한 말 재주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은 백배로 늘어난다. 교묘함을 단절하고 탐욕을 버리면 도적은 사라진다. 허위를 단절하고 사사로운 걱정을 없애면 백성은 어린아이의 세계와 같은 천진하고 소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중의 「隳」자를 「隳」으로 쓴다. 이 자를 「隳(隳)」(《郭店楚簡·老子乙》로 쓰기도 한다.<sup>34)</sup> “隳(絕)智(知)弃卞(辯)”을 馬王堆漢墓帛書 《老子·甲》과 《老子·乙》은 「絕聲(聖)棄知」로 쓴다.<sup>35)</sup> 《說文解字》는 「縶(絕)」자의 古文을 ‘縶(縶)’로 쓰며, 죽간문과 비슷하다. 《中山王釐鼎》은 「絕」자를 ‘縶(縶)’로 쓴다.<sup>36)</sup> 따라서 「蕙」자는 「絕」의 이체자이며 정리본이 옳다.

### 3. ‘佳季眾非民亡與獸邑’ 중 ‘眾非民’에 대한 이해

“佳季眾非民亡與獸邑”은 “惟厥眾非民亡與守邑”으로 “군주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않고, 백성의 보좌가 없으면 국가를 지켜낼 수 없는 것이다”의 의미이다.<sup>37)</sup> 《清華簡》 정리본은 “惟厥眾”은 “意謂夏敗也是其民衆促成.(하나라의 멸망은 그 백성 민중이 야기시킨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非民亡與守邑”은 《國語·周語上》에서 《夏書》를 인용한 “衆非元后何戴, 后非衆無與守邦.(대중에게 좋은 군주가 없으면 누구를 옹호할 것이며, 군왕

33) 蘇建洲, <《清華簡》考釋四則>, 컴퓨터 사이트 「簡帛研究」, 2011.1.9.

34) 《郭店楚簡·老子乙》은 “隳(絕)學亡慮(憂), 唯與可(呵), 相去幾可(何)?(배움을 끊으면 걱정이 없다. 공손한 대답과 공손치 않은 대답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가?)”로, 《帛書乙本》은 「絕學无憂, 唯與呵, 其相去幾何?»로 쓴다. 최남규 等著, 《郭店楚簡老子考釋》, 도서출판덕, 2011, 168-170쪽 참고.

35) 崔南圭 等著(2011), 앞의 책, 4-6쪽 참고.

36) 容庚, 앞의 책, ‘2100 縶’(858쪽) 참고.

37) 李學勤 主編(2010), 앞의 책, 133쪽 참고.

에게 백성이 없으면 그와 함께 나라를 보위코자 할 사람이 없게 된다” 구절과 현행본 孔傳本の 《咸有一德》 “后非民罔使, 民非后罔事.(군주는 백성이 없으면 다스릴 수 없으며, 백성은 군주가 없으면 섬길 자가 없다)”와 유사한 내용이라 하였다.<sup>38)</sup>

劉國忠《走進清華簡》은 “夏朝的民衆也與他們國君決裂.(하나라의 백성 또한 군주에게서 멀어졌다(민심을 돌렸다)”로 해석하고 있다.<sup>39)</sup> 그러나 「民」과 「衆」은 「民衆」이 아니라, 독립된 각각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隹𠂔眾” 중의 「𠂔」자는 「懸(絶)」자의 용법과 같이 동사인 「蹶(넘어질 꺾; jué, juě)」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殷商 시기에는 「衆」은 지위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는 奴隸나 노예를 관리하는 관리라는 의미로 쓰였다.<sup>40)</sup> 《詩經·周頌·臣功》은 「命我眾人, 痔乃錢縛.(농업을 관리자에게 명하노니 가래와 호미를 준비토록 해라)」라 했다. 「民」은 「官吏」와 상반된 개념으로 쓰였다.<sup>41)</sup> 물론 「衆」과 「民」의 뜻이 확실히 구별되어져 사용되지는 않지만, 「民衆」이라는 합성어로는 사용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

“非民亡與獸邑”의 문맥 구조와 「非」자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대사+명사」 구절인 “𠂔(蹶)辟”을 참고하여 「彼」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sup>42)</sup> 《國語·周語上》는 “夏書有之曰: ‘衆非元后, 何戴? 后非衆, 無與守邦.’ 在湯誓曰: ‘余一人有罪, 無以萬夫, 萬夫有罪, 在余一人.’ 在盤庚曰: ‘國之臧, 則惟女衆. 國之不臧, 則惟余一人, 是有逸罰.’ 如是則長衆使民.(《夏書》에 이르기를 ‘대중에게 좋은 군왕이 없으면, 누구를 옹대하겠는가? 군왕에게 대중이 없으면 그와 함께 나라를 보위코자 할 사람이 없

38) 李學勤 主編(2010), 앞의 책, 133-134쪽 참고.

39) 劉國忠, 앞의 책, 125쪽.

40) 朱歧祥, 《殷墟甲骨文字釋稿》, 文史哲出版社, 1989. 16쪽. “衆爲殷民一種, 階級卑下, 乃勞動力的主要來源, 多從事農耕.”

41) 王鳳陽 著,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1993. 378쪽 참고.

42) 劉洪濤, <‘非’疑應讀爲‘彼’>, 復旦大學出土文獻學古文字研究中心 (<http://www.gwz.fudan.edu.cn/>). 2011.2.22.

게 된다'라 했다. 《湯誓》는 '나 한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한 사람이 이를 받으면 되고, 백성에게 화난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백성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모두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라 했다. 《盤庚》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너의 대중들의 공로이고,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 했다. 군주가 이와 같아야 비로소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고 백성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清華簡》의 사실상 「非民亡與守邑」 구절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國語》의 「后非衆, 無與守邦」과 「非民亡與守邑」은 문장 형식이 유사하며, 「非」자 앞에 군주의 의미인 「后」자가 생략되었다. 또한 「與」자 뒤에도 「后」를 가리키는 代詞가 생략되었다. 《國語》의 「長衆使民」 구절 중의 「衆」과 「民」은 《清華簡》의 「佳孚眾非民」 중의 「衆」과 「民」의 형식처럼 각각 나누어 쓰고 있다. 따라서 「佳孚眾非民亡與獸邑」 문장은 「佳孚眾」·「[君]非民」과 「亡(無)與[君]獸邑」 세 구절로 되어있다.

#### 4. '我克𠄎(協)我畜(友)' 중 「𠄎(協)」자

《清華簡》의 「𠄎」자를 정리본은 「協」자로 해석하고, 《書經·湯誓》의 「有衆率怠不協.(일반 백성 모두는 태만하고 화합하지 않았다)」 구절의 뜻과 같다 하였다. 「畜」자는 《說文》 중의 「友」자 고문과 같다라 하였다.<sup>43)</sup>

「𠄎」자는 사실상 「麗」 혹은 「麗」로 예정할 수 있다. 徐中舒 《甲骨文字典》은 甲骨文 「𠄎」·「𠄎」·「𠄎」·「𠄎」·「𠄎」자 등을 「麗」로 예정하고 「從二𠄎(未)從二𠄎(犬). 從二未象並耕之形, 古代偶耕, 故麗有耦意, 從二犬相附亦會偶意. 《周禮·夏官·校人》: 「麗馬一圉, 八麗一師」, 注「麗, 耦也」. 故麗得訓爲伉麗. 金文作𠄎(《盥盨鐘》)·𠄎(《齊侯罇》). 盥盨鐘云「麗盥萬民」, 齊侯罇云: 「盥麗而九事」. 「麗盥」·「盥麗」即《堯典》之「協和」, 借

43) 李學勤 主編(2010), 앞의 책, 134쪽 참고.

麗爲協, 與荔音轉爲協例同.(이 자는 두 개의 「𠂔(未)」와 두 개의 「𠂔(犬)」으로 이루어진 자이다. 두 개의 쟁기가 나란히 경작을 하는 형태이다. 古代에 짝을 이루어 논밭을 갈았기 때문에 「麗」자는 「耦(짝 우, ǒu)」의 의미가 있다. 두 마리의 개 또한 짝을 의미한다. 《周禮·夏官·校人》의 ‘한 쌍의 말은 한 圉라 하고, 여덟 쌍을 한 師라 한다’에 대하여 《注》는 ‘「麗」 「한 쌍」이라 했다. 그래서 「麗」는 또한 ‘한 쌍의 반려자(伉麗)’라는 의미가 있다. 金文은 「𠂔」(《盥盥鐘》)·「𠂔」(《齊侯罇》)로 쓴다. 《盥盥鐘》은 ‘온 백성이 화합하고 협력하네’, 齊侯罇은 ‘모든 일이 화평하네’라 했다. 「麗」와 「盥」은 즉 《堯典》 중의 ‘協和(화합하고 평화롭다)’와 같은 의미이다. 「麗」자는 「協」자로 가차하여 쓰이는 것은 「荔」자가 「協」으로 음이 對轉하여 쓰인 예와 같다.” 라 했다.<sup>44)</sup> 《說文解字》는 「麗」자에 대하여 “从鹿麗聲. 麗, 古文. 𠂔, 篆文麗字.(「鹿」와 「麗」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古文은 「麗」로 쓰고, 篆文은 「𠂔」로 쓴다”라 하였다.<sup>45)</sup> 「協」자와 「荔」자는 음성부분이 모두 「荔」이고, 徐鉉의 반절음은 「麗」자와 마찬가지로 「郎計切」인 것으로 보아, 「麗」와 「協」의 음성적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𠂔(麗)」자는 甲骨文 「𠂔」나 金文의 「𠂔」의 이체자로 「麗」로 예정할 수 있고, 「協」의 가차자로 쓰인다.

##### 5. ‘𠂔于白甯邑’ 중 「甯」자

《清華簡》은 「甯」자를 「甯」로 쓴다. 정리본은 「亳」은 상나라를 가리키고, 당시 상나라의 수도는 「亳」지방에 있었다라 하였으며,<sup>46)</sup> 「甯」자에 대

44)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8. 1083-1085쪽 참고. 容庚, 앞의 책, ‘0162 𠂔’(76쪽) 참고.

45) 李孝定 《甲骨文字集釋》은 “麗既以古文爲聲.(「麗」자는 고문의 「麗」가 음성부분이다)”라 했다. 湯可敬 著,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1340쪽 재인용.

46) 李學勤 主編(2010), 앞의 책, 134쪽.

해서는 실질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劉國忠은 「白(毫)中(中)邑」에 대하여 「可能是指毫中的城邑。(毫에 있는城邑일 가능성이 있다)」라 했다.<sup>47)</sup> 그러나 「中」자는 實詞의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虛詞인 조사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馬瑞辰는 《毛詩傳箋通釋》에서 《周南·葛覃》 「施于中谷」 구절 중의 「中」자에 대하여 “凡《詩》言「中」字在上者，皆語詞。‘施于中谷’猶言施于谷也，‘施于中逵’·‘施于中林’猶言施于逵·施于林也。‘中心有違’·‘中心好之’·‘中心藏之’，凡言‘中心’者，猶言「心」也。又《詩》‘瞻彼中原’·‘于彼中澤’·‘中田有廬’之類，「中」皆語詞。《式微》詩‘露’與‘泥’皆邑名，詩言‘中露’·‘泥中’，兩‘中’字亦語詞。推之，《禮》言‘中夜無燭’，《易》言‘葬于中野’，「中」字亦皆語詞。後人失其義久矣。(《詩經》에서 ‘中’자가 실사 앞에 놓이는 경우는 모두 語助詞이다. 예를 들어, ‘施于中谷(취 길게 산골짜기에 뻗어 있네)’는 즉 ‘施于谷’이고, ‘施于中逵(토끼 그물 언덕 위에 쳐 있네)’·‘施于中林(숲 속에 쳐 있네)’는 각각 ‘施于逵’과 ‘施于林’의 뜻이다. ‘中心有違(마음에 원한있네)’·‘中心好之(가슴 깊이 좋아하네)’·‘中心藏之(마음 속에 품고 있네)’ 중의 ‘中心’은 곧 「心」의 의미다. 또한 《詩經》의 ‘瞻彼中原(평야를 바라보네)’·‘于彼中澤(저 연못에 있네)’·‘中田有廬(밭에 움막이 있네)’ 중의 「中」은 모두 어조사이다. 《式微》 중의 ‘露’와 ‘泥’는 모두 邑名이고, ‘中露’와 ‘泥中’ 중의 「中」 역시 어조사이다. 따라서 《禮記》 ‘中夜無燭(밤에 촛불이 없다)’와 《周易》 ‘葬于中野(들판에 묻다)’ 구절 중 「中」 역시 어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된 것이 오래 되었다”라 하였다.<sup>48)</sup> 《清華簡》 「中(中)邑」의 「中」은 《詩經》 중의 「中露」와 「泥中」의 「中」과 같은 형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清華簡》의 「中(中)邑」 중의 「中」자를 굳이 「~중에 있는」이라는 의미로 보지 않고, 어조사로 해석하기로 한다. 「中」자는 《清華簡》의 「中」 이외에도 《上博楚簡》은 「

47) 劉國忠, 앞의 책, 125쪽, 注[17] 참고.

48) 馬瑞辰 著, 《毛詩傳箋通釋》, 中華書局, 1989. 36쪽.

「𠄎」(《容成氏》14簡)·「𠄎」(《周易》4간)으로, 《郭店楚簡》은 「𠄎」(《老子甲》22)·「𠄎」(《老子乙》9)·「𠄎」(《五行》5)·「𠄎」(《唐虞之道》16)·「𠄎」(《成之聞之》26)·「𠄎」(《六德》12)·「𠄎」(《語叢一》19) 등으로 쓴다.

### III. 결 론

《清華簡》은 《尙書》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계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출토문헌이다. 《尹誥》의 내용과 현행본 《尙書》의 《咸有一德》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은 《咸有一德》가 僞古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써, 閻若璩가 《尙書古文疏證》에서 僞古文라고 고증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清華簡》의 ‘佳尹既返湯咸又一惠’ 중 「既」자를 정리본은 「巳」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다른 판본이 인명인 「夔」·「躬」과 「允」자로 쓰는 것으로 보아, 「既」자는 인명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惠」자의 편방 「𠄎」은 「絶」의 생략형이며, 「絶」자의 이체자이다.

“非民亡與獸邑”의 구절은 《國語》의 “后非衆，無與守邦”와 같은 문장 형식으로, 「非」자 앞에 군주의 의미인 「后」자가 생략되었고, 與」자 뒤에도 「后」를 가리키는 代詞가 생략된 문장이다. 「夔」자는 「麗」로 예정할 수 있고, 「協」의 가차자로 쓰인다. “白(毫)𠄎(中)邑” 중의 「𠄎」은 《清華簡》에서 實詞가 아닌 虛詞인 어조사 용법으로 쓰인다.

### < 參考文獻 >

-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上海中西書局, 2010.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貳)》, 上海中西書局, 2011.

- 劉國忠 著,《走進清華簡》,北京高等教育出版社,2011.
- 崔南圭 譯註,《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紂衣》,소명출판사,2012.
- 崔南圭 等著,《郭店楚簡老子考釋》,도서출판덕,2011.
- 屈萬里 註譯,《尚書今註今譯》,臺灣商務印書館發行,1969.
- 金學主 譯著,《書經》,서울明文堂,2002.
- 荊門市博物館 編著,容庚,《金文編》,中華書局,1985.
- 鄭張尚芳 著,《上古音系》,上海教育出版社,2003.
- 容庚,《金文編》,中華書局,1985.
- 荊門市博物館 編著,《郭店楚墓竹簡》,文物出版社,1998.
- 李守奎 主編,《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五)文字編》,北京作家出版社,2007.
- 滕壬生,《楚系簡帛文字編(增訂本)》,湖北教育出版社,2008.
- 蘇建洲,《〈清華簡〉考釋四則》,컴퓨터사이트「簡帛研究」,2011.1.9.
- 朱歧祥,《殷墟甲骨文字釋稿》,臺灣文史哲出版社,1989.
- 黃錫全,《汗簡注釋》,臺灣古籍出版有限公司,2005.
- 陳初生 編纂,《金文常用字典》,陝西人民出版社,1987.
- 王鳳陽 著,《古辭辨》,吉林文史出版社,1993.
- 徐中舒 主編,《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1988.
- 馬瑞辰 著,《毛詩傳箋通釋》,中華書局,1989.
- 湯可敬 著,《說文解字今釋》,岳麓書社,2001.
- 馬瑞辰 著,《毛詩傳箋通釋》,中華書局,1989.

### <中文提要>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簡稱《清華簡(壹)》)于2010年出版。《清華簡(壹)》共九篇,包括《尹至》·《尹誥》·《程寤》·《保訓》·《耆夜》·《金縢》·《皇門》·《祭公》和《楚居》。其中,《尹誥》竹簡共5

支, 簡長45厘米, 三道編, 爲《尚書》中的一篇, 或稱《咸有一德》. 《清華簡(壹)》簡文與孔傳本《咸有一德》全然不同, 據學者所考, 孔傳本《咸有一德》系僞作.

‘佳尹既逸湯咸又一德’中「既」字, 整理本釋爲「已」, 但其他版本中用作人名「夔」·「躬」和「允」等字, 通過證明「既」字并非用作副詞, 而應爲人名. 「蕙」字的字件「𠄎」爲「絕」字的略體, 也是「絕」字的異體字. “非民亡與獸邑”句與《國語》中“后非衆, 無與守邦”句的文章形式相似, 「非」字前省略「后」, 而且「與」字後又省略「后」字. 「𠄎」字實可隸定爲「麗」, 借作「協」義. “白(毫)审(中)邑”中的「审」字, 在《清華簡》中不作實詞而作虛詞, 而實際上應看作無實意的語助詞.

주제어 : 尹誥, 清華大學藏戰國竹簡, 郭店楚墓竹簡,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楚竹簡, 說文解字

